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고용상황과 정부의 고용관련 대책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술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전역에 엄청난 인적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곳은 동북지역으로 바다에 근접한 연안부에 위치한 사업소는 건물이 붕괴되고 기자재가 쓰나미에 쓸려 갔으며, 앞치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로 인해 상당수의 사업소가 휴업 및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풍평피해¹⁾의 확대에 의해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일본 전역에 확대되게 되었다. 사업소의 상당수가 지진 및 쓰나미의 영향으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들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존의 거주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거주지를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 일본정부는 긴급히 피해지취업지원회의를 설립하고 각종 제도에 대해 특례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 왔지만, 결단력 부족 및 정책시행 미숙 등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본고에서는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최근의

1) 소문으로 인해 인지도가 손상되어 입는 피해.

노동시장의 동향과 정부의 고용대책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마그니튜드 9.0 이라고 하는 일본 지진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지진 발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16일 현재 지진으로 인한

〈표 1〉 동일본대지진과 한신·아와지대지진의 피해상황 비교

		동일본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연도		2011년	1995년
사망자		14,941명	6,434명
행방불명자		9,882명	3명
부상자		5,279명	43,792명
최대 피난소수		2,415개소	1,153개소
최대 피난자수		468,600명	316,678명
주택	전부 파괴됨	83,579호	104,906호
	반만 파괴됨	31,660호	144,274호
	일부만 파손됨	243,661호	390,506호
화재		345건	293건
수도 단수		220만 호 이상	약 130만 호
정전		약 890만 호	약 260만 호
가스공급 정지		약 40만 호	약 86만 호
고정전화 불통		약 100만 회선	30만 회선 이상

자료: 中村いずみ(2011), 「未曾有の広域災害をもたらした被害~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2か月~」, 『立法と調査』 No.317.

피해자수는 사망 15,527명, 행방불명 7,102명²⁾으로, 한신·아와지대지진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 6,437명을 크게 상회하였다. 최대피난소수와 최대피난자수 역시 각각 2,415개소와 468,600명³⁾으로 한신·아와지대지진의 1,153개소와 316,678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가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11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누출의 영향으로 피해지의 많은 사업소가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고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세 현의 연안부에 위치한 사업소는 8.8만 개소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수는 84.1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이들 연안부의 어업과 농업 등은 기반침하와 염해 등에 의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제2차산업의 제조공장 등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취업자의 상당수가 순식간에 생활기반과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

취업자 및 실업률 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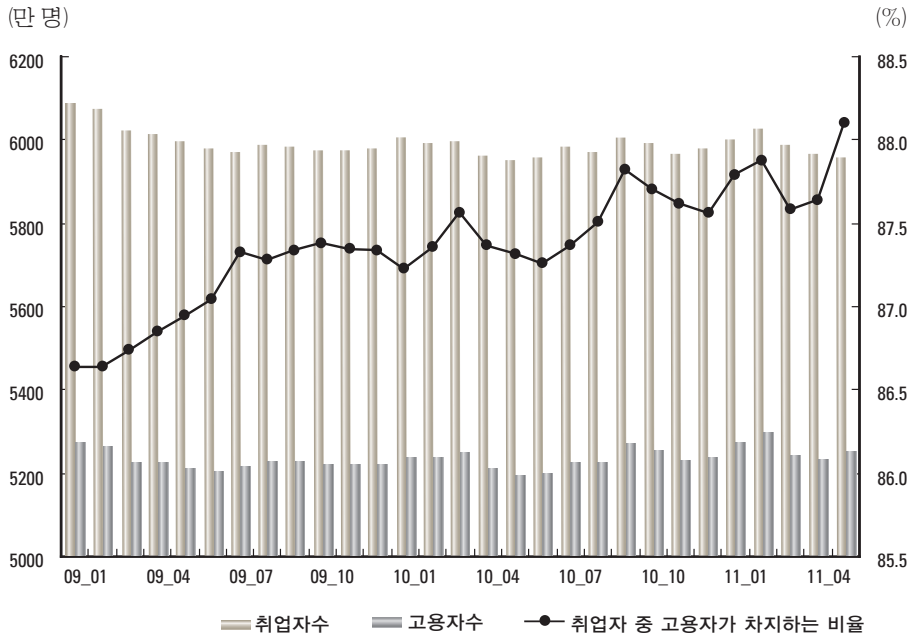
총무성이 지난 7월 1일에 공표한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하면 2011년 5월 현재 일본의 취업자수는 5,959만 명(계절조정치)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0만 명이 증가하였지만, 동년 4월에 비해서는 10만 명이 감소하였다. 취업자수의 감소는 올 3월 이후 3개월 연속된 것으로, 3월 이후 총 감소자수는 70만 명(3월 △46만 명, 4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또한 고용자수는 5,250만 명(계절조정치)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6만 명이, 동년 전월에

2) 6월 16일 현재 내각부 발표자료, 7월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자료.

3) 2011년 5월 10일 현재.

[그림 1] 취업자수와 고용자수의 추이(계절조정치)



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취업자수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총무성통계국의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작성.

비해서는 19만 명이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의료, 복지’, ‘교육, 학습지원법’ 관련분야에서 고용자수가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관련분야에서는 고용자수가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5월 현재 88.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011년 5월 현재의 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283만 명으로 전년 동월의 321만 명에 비해 38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구직 이유별로는 비자발적 이직이 102만 명으로 전년 동월의 125만 명에 비해 23만 명이 감소한 데 비해, 자발적 이직은 102만 명으로 같은 기간에 2만 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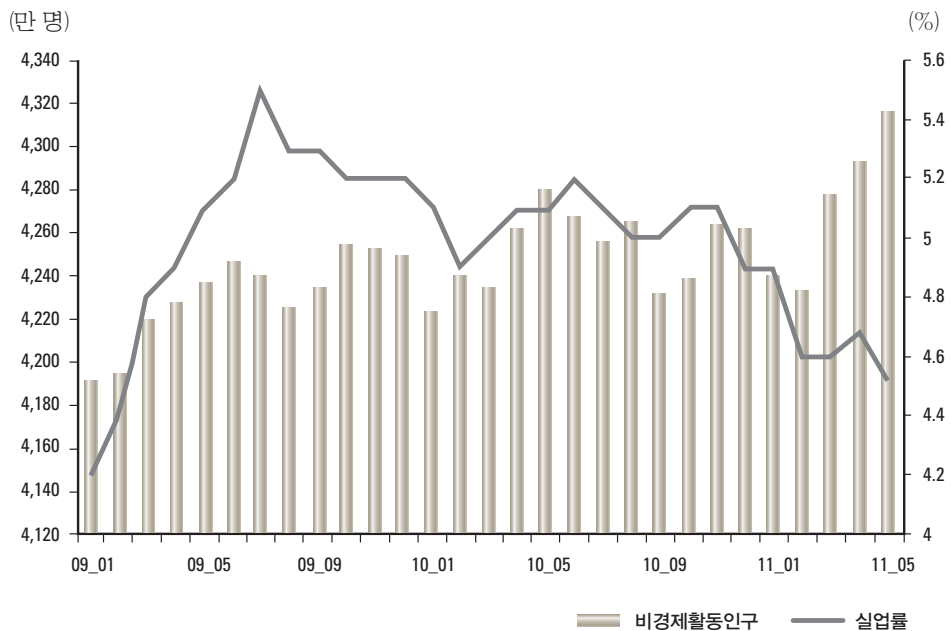
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년 동월의 5.1%보다 0.6%p 저하한 4.5%로 나타났는데, 특히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10.1%에서 8.0%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이 경기회복에 영향을 받은 취업자 증가의 성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선 3월 이후의 일본의 실업률이 이전의 실업률과는 기준치가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3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노동력조사는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어 조사가 어려운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과 사업소의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고용정세는 공표치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력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수가 38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취업자수는 동 기간에 10만 명이 증가하는 데에 그친 점과,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4,281만 명에서 4,315만 명으로 오히려 34만 명이나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실업률 하락은 정부의 고용대책 효과나 취업환경 개선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자, 즉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결과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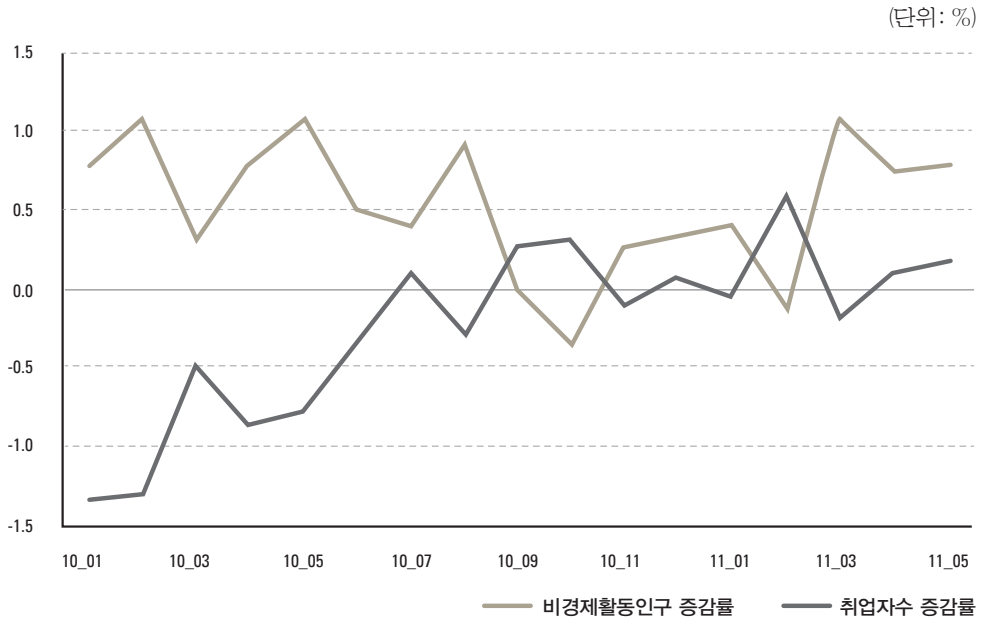
[그림 2]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계절조정치)



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취업자수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총무성통계국의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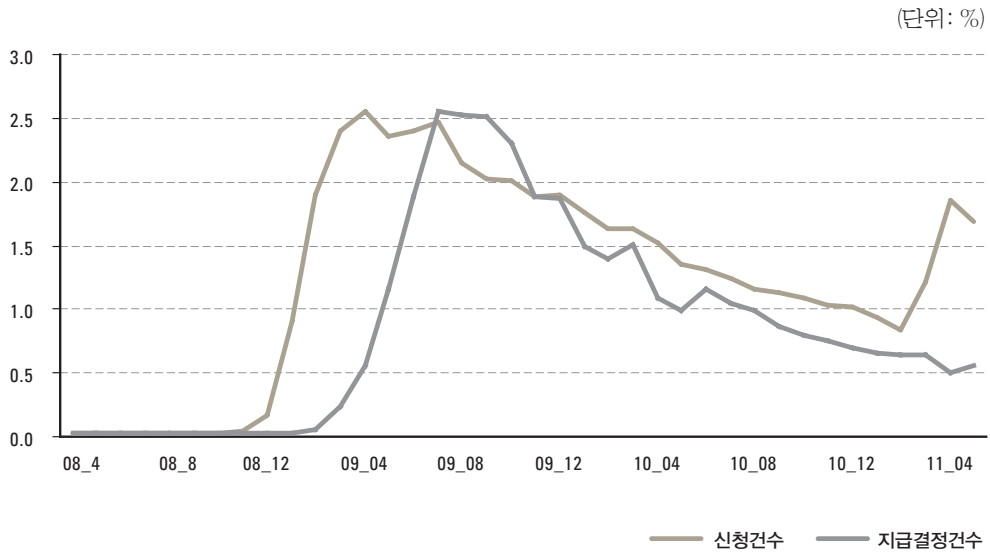
[그림 3]은 취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율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취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추이



자료: 총무성통계국의 노동력조사.

[그림 4] 고용조정조성금의 신청, 지급결정건수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雇用調整助成金等に係る休業等実施計画届受理状況平成20年度~平成23年度」 및 「雇用調整助成金等支給決定状況平成20年度~平成23年度(速報値)」를 이용하여 작성.

고용조정조성금의 신청상황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5월에 고용조정조성금 등을 신청한 사업소수와 대상자수는 각각 61,901개소와 166.7만 명으로 4월의 62,12개소와 183.2만 명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인 2월의 50,366개소와 810,159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행정구역별로는 아이치현이 7,199건(대상자수 252,376명, 전월대비 54,594명 감소)으로 가장 많은 사업소가 신청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쿄도(6,106건, 134,683명, 전월대비 30,995명 감소), 오사카부(5,454건, 88,736명, 전월대비 14,016명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본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동북지방 6개현의 경우 대상자가 286,000명으로 지난달보다 약 8만 명이 증가하였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생산활동 회복이 신청건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동북지방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재건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 등의 취업상황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1일 2010년도에 졸업한 대학생의 취업률(2011년 4월 1일 현재)의 확정치가 전년 동기대비 0.8%p 하락한 91.0%라고 발표하였다.⁴⁾ 이는 취업빙하기로 불리던 2000년도의 91.1%를 밑도는 수치로 과거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최종적인 취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 후생노동성(2011), 「平成22年度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調査」.

〈표 2〉 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취업률

	취업희망률	취업률	전년도졸업자의 취업률 (2010년4월1일 현재 조사결과)
대학	66.5%(▲0.3)	91.0%(▲0.8)	91.8%
국공립	49.8%(▲3.0)	93.5%(▲1.0)	94.5%
사립	74.7%(1.0)	90.1%(▲0.7)	90.8%
전문대학	74.8%(3.5)	84.1%(▲4.3)	88.4%
고등전문학교	56.3%(1.3)	98.7%(▲0.8)	99.5%
전체	66.5%(0.1)	90.7%(▲1.2)	91.9%

자료: 후생노동성(2011), 「平成22年度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調査」.

■ 정부의 고용대책

피해자취업지원회의 설립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정부는 3월 11일에 내각부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밤샘회의 끝에 이번 동일본대지진을 ‘격심재해법’에 근거해 ‘격심재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복구사업시에 국고 보조액이 상향 지급되며, 지방공공단체에 정부의 특별재정원조가 실시된다. 또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 7개 도와 현에서는 113개 기초자치단체에 동법을 적용하였다.

긴급재해대책본부 산하에는 피해자의 생활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생활지원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동 본부의 산하에는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회의와 추진회의가 설치되었으며, 피해자의 지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책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 대한 취로지원 및 고용창출 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고용조정조성금은 매출과 생산량이 감소해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꾀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정부가 조성하는 제도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 지급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중에서 재해구조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① 생산지표의 최근 1개월간 실적이 그 직전 1개월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사업소의 사업주와 ② 동일본대지진 이후 1개월간 실적이 그 직전 1개월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5%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조성금이 지급된다.

조성금이 지급되는 경제상의 이유로는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① 인적, 물적 교통이 저해를 받거나 또는 두절된 경우, ② 수요가 감소하고 또 집객이 곤란한 경우, ③ 종업원의 출근이 곤란한 경우, ④ 사업소 및 설비 등이 파손되었지만 수리업자의 수배와 수리부품의 조달이 곤란하여 조기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단, 지진에 의해 건물과 설비, 시스템 등이 피해를 입어 발생한 사업활동의 정지 또는 축소는 조성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는 ① 기존의 5개 현 외에 추가적으로 도치기현, 지바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중에서 재해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 ② 9개 현에 소재하는 사업소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소의 사업주, ③ 계획정전에 의해 사업활동이 축소된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적용이 확대되었다.

고용조정조성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액에 대해서 대기업의 경우 3분의 2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분의 4까지 지급된다(상한액 1인 1일 7,505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은 경우의 조성률은 각각 4분의 3, 10분의 9까지 인상 적용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급일수와 상관없이 특례대상기간(1년간) 중에 개시한 휴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일간을 조성금의 대상기간으로 하고, 피보험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조성금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잠정적인 조치가 연장되게 되었다. 제1차 보정예산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액은 7,269억 엔이 편성되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새롭게 연간 적산선량⁵⁾이 20밀리시벨트에 달할 염려가 있는 구역은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피난을 하는 '계획적피난구역'으로, 동 발전소의 반경 20~30km의 옥내대피구역은 '긴급시피난준비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었다. 이를 반영한 고용조정조성금과 고용보험 특례조치의 이용가능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적피난구역의 경우 고용보험 특례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
- ② 긴급시피난준비구역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과 고용보험 특례조치의 이용이 가능
- ③ 이전에 옥내대피지시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번에는 어느 쪽 구역에도 설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이용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경과조치로서 고용보험의 특례조치가 이용가능

고용보험실업급여 특례조치

격심재해 지정과 동반한 고용보험 특례조치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근로자에게는 「격심재해법 고용보험 특례조치」에 의한 특별조치가 적용된다. 「격심재해법 고용보험 특례조치」란, 재해에 의해 사업소가 휴업 및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휴업을 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실제로 이직하지 않았더라도 헬로워크 소장으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증명서를 헬로워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휴업 전의 임금지불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특례조치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의 신청 등에 의해 수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처가 휴업 및 폐업 상태일 때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서류의 제출처도 해당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헬로워크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일정기간 내의 방사선의 총량.

재해구조법 적용지역에 대한 고용보험 특별조치

또 하나의 특례조치로 「재해구조법 적용지역에 대한 고용보험 특별조치」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해 직후의 생활을 응급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재해구조법의 적용지역에 있는 사업소가 재해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하여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사업 재개 후의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특별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청서와 이직증명서를 헬로워크에 제출할 필요가 있지만, 이직증명서에 기재하는 휴업 전 임금지불상황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 신청만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휴업 및 이직을 하게 된 근로자의 실업급부의 급부일수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연장급부(원칙 60일분)를 추가적으로 60일 더 연장하는 특례조치⁶⁾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난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각 지방 노동국과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연금상당소가 공동으로 복지 및 생활, 그리고 고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광역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이번 동일본대지진의 특징으로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 피해자가 많은 점, 고용을 제공하는 많은 사업소가 과밀적인 상태에 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원래 일 하던 근무처를 떠나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본정부는 고용대책법에 근거한 직업전환급부금제도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에는 여비(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장이 정해져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전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6) 2011년 5월 2일에 성립한, 동일본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

면접관련 여비에 상당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의 재해구조법 지정지역에서 취업했던 자로, 이번 재해로 인해 이직하게 된 자와 취업내정자가 그 대상이다. 지급요건은 해당자 본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와 방문하는 구인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 사이의 거리가 철도로 왕복 300km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구직자가 원격지 직장에 채용되어 전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거비가 지원되는 데, 전거비지원을 받기 위한 지급요건으로는 ① 헬로워크가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또는 헬로워크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또는 직장적응훈련을 받기 위해 주소 및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 통근에 왕복 4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는 등 주소 및 거주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체당금제도를 실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어려워 도산한 사업소에 속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임금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한 중소기업에 고용된 자로, 기업도산과 함께 퇴직하여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미지급임금의 총액이 2만 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법률상 도산절차를 거친 경우는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임금은 퇴직 6개월 전 날부터 체당금청구 전 날까지 사이에 급여지급일이 포함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이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45세 이상 296만 엔, 30~44세 176만 엔, 30세 미만 88만 엔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정취소자에 대한 대응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던 신규졸업자의 상당수가 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후생노동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창구를 지난 3월 28일까지 전국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에 56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후생노동대신과 문부과학대신은 연명으로 주요 258개 경제단체 등에 채용내정자가 가능한 한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피해자 학생의 엔트리시트의 제출마감일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내정취소를 회피해줄 것과, 인원정리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의 실시, 해고자선정기준의 합리성, 수속절차의 타당성 등 정리하고 4원칙을 염두에 둔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일자리프로젝트 시동

피해자의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고용창출을 검토해온 정부의 피해자취업지원 및 고용창출추진회의는 지난 4월 5일 「일본은 하나, 일자리프로젝트(제1단계 계획, 페이지 원)」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또 4월 22일에는 4조 153억 엔의 제1차 보정예산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고, 동월 27일에는 예산조치를 반영한 제2단계 계획(페이지 투)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5월 2일에 성립한 후생노동성의 제1차 보정예산은 1조 8,407억 엔으로, 이 중 1조 1,130억 엔이 고용 및 노동관련 부문에 지원되었다. 내각부는 이번 4조 엔이 넘는 보정예산의 실행에 의해 175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고용창출 20만 명, 고용유지 150만 명)가 발생했다고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일자리프로젝트 제1단계 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을 축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취로지원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 방침으로 ① 복구사업에 의해 피해자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 기업과 자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과 ② 피해자의 의향을 고려하면서 지역 또는 피해자 이외 지역에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동 회의가 계획하고 있는 긴급종합대책은 ① 복구사업 등에 의한 고용창출 ② 피해자와 일자리 매칭(Matching)체제 구축 ③ 피해자 고용유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구사업에 의한 고용창출

인프라 복구, 쓰나미로 인한 건물잔해 더미 철거, 가설주택 건설, 피해주택 보수 및 재건 등의 복구사업은 확실히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으로, 당분간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의 건

설관련 기업이 수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구사업에 피해지역의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고용창출기금사업을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고용창출기금에 의한 사업은 2007년 이후 고용정세가 좋지 않았을 때부터 각 도도부현에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기반을 구축하여 왔는데, 이 중에서 중점분야 고용창조사업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에 연결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교부액은 3,500억 엔으로 지진으로 인한 재해대응분야를 추가하고 기금에 500억 엔을 더 얹어 피해자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구사업과 중점분야 고용창조사업의 추가를 통해 2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와 일자리 매칭(Matching)체제 구축

원래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고연령자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등 취업곤란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조성금이다. 이 제도의 특례조치로서 지진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이직자와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헬로워크 등의 소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주에게도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급액은 대기업이 50만 엔, 중소기업이 90만 엔이며, 단기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30만 엔과 60만 엔이 지급된다.

인재와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은 불가피한 항목으로, 피해지의 이직자 등에 대한 건설관련분야 등 공공직업훈련의 확충, 피해지역의 훈련생 등에 대한 훈련과 재직자 훈련의 수강료 등의 면제 등 직업훈련 확충을 실시한다.

피해자 고용유지

당면한 긴급고용대책으로 피해자의 고용유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대책의 포인트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특례조치에 의한 확충, 고용보험 연장급부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 맺음말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정부는 피해자취업지원회의를 설립하고 각종 제도에 대해 특

례조치를 적용하는 등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한 각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용대책은 정부지출의 일시적인 확대에 의한, 어디까지나 긴급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피해지역의 복구와 일본경제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대졸자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고용환경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관련 정책의 상당부분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므로, 향후에는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고용 및 노동관련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정비하도록 일본정부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지만, 전체 전력의 35%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일에 있을 사태를 고려하여, 일본의 재해관련 대책과 그에 따른 고용관련 대책의 추진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